

위기의 광주FC '천군만마' 얻었다

‘에이스’ 엄지성 해외 이적 등 외부 악재·기복많은 플레이 속 신장무·이희균 부상 복귀 ‘단비’

갈 길 바뀐 광주FC가 ‘천군만마’를 얻었다. 위밍업을 끝내고 첫 골을 장식한 신장무와 부상 복귀전을 치른 이희균으로 광주가 순위 싸움에 날개를 달았다.

‘이정효호’는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출항했다. FC서울과의 개막전을 2-0 승리로 장식하는 등 연승으로 시즌을 열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한때 6연패에 빠져 최하위까지 추락하기도 했고, 견고했던 수비가 흔들리면서 역전패도 이어졌다.

리그와 코리아컵 그리고 구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세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지만 기복 많은 플레이로 고전하고 있고 외부 악재도 발생했다.

올 시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구단의 재정 건전화 위해 새로 도입한 재정 규정을 달성하지 못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이 어려워진 상황, ‘에이스’ 엄지성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스완지시티 이적을 앞두고 있다.

총체적 난국 속 치러진 6월 30일 제주와의 홈경기 승리는 그래서 더 반갑다. 부상으로 고전했던 신장무와 이희균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시즌 4번째 경기이자 첫 선발 출장에 나선 신장무는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장식했다.

정호연의 패스를 받은 신장무가 몸을 돌려 전진한 뒤 왼발 슈팅을 날렸고, 시원하게 허공을 가른 공이 그대로 제주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후반에는 이희균이 등장했다. 부상으로 쉬어갔던 이희균이 후반 19분 신장무와 자리를 맞바꿨다. 경기 도중 충돌로 교체된 안영규를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찬 이희균은 그라운드에서 오르내리며 거침없는 플레이로 그라운드를 휘저으며 관중석을 뜨겁게 달궜다.

후반 44분 가브리엘의 골 시작점에도 이희균이 있었다. 이희균이 제주 진영에서 탈압박소를 펼치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고, 김진호에 이어 가브리엘에게 연결된 공은 2-1 승리를 부른 결승골이 됐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게임 체인자’가 된 이희균은 이정효 감독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다. 경기는 물론 팀 분위기가 바뀌어



지난 6월 30일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통해 부상 복귀전에 나선 광주FC 이희균(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공을 물고 상대 진영으로 향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릴 수 있는 자원이란 만큼 이희균의 복귀가 반갑다.

“골을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웃은 신장무는 “나보다 감독님이 더 많이 기다려주셨고 죄송한 마음이 컸다. 언제 보답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었다. 좋게 봐주셔서 기회를 주셨고 운 좋게 골을 넣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호연이가 패스를 정말 잘 줬다.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이 들어가기 전에 슈팅을 아끼지 말라고 하셔서 보지도 않고 때렸는데 운 좋게 들어간 것 같다.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다. 다음 경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는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뒷심싸움에서 승자가 됐다. 후반 시간 추가 제주의 프리킥 상황에서 골키퍼 김경민의 결정적인 슈퍼세이브가 나오면서 광주는 승리를 챙겼다.

신장무는 “경민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모르겠다(웃음). 너무 감사드리고 경민이 형도 잘했지만 슈도우 한 선수들 많이 뛰어들었다. 우리가 마지막에 골 먹고 지는 경기가 많았는데 패배로 배운 것들이 많다고 느껴졌다. 조금 더 단단한 팀이 됐다고 많이 느꼈다”며 “매 경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임했다. 이긴 것 있고 다음 경기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신장무는 마음고생을 털어낸 시원한 골을 넣은 뒤 ‘임신 세리머니’로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처음 전했다.

신장무는 “임신 5개월 됐고, 너무 하고 싶었던 세리머니다. 감독님께 임신 소식을 어떻게 전달드릴까 고민했는데 좋은 기회가 있었다. 와이프가 나보다 더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세리머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희균은 “내가 스타가 됐어야 했다”며 특유의 넉살로 부상 복귀전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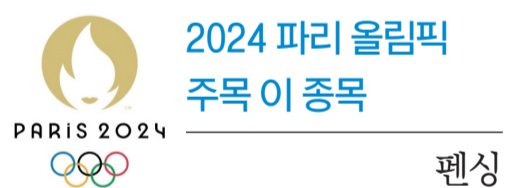
그는 “돌아오고 싶었는데 잘 돌아온 것 같다. 잘

보여준 것 같기는 한데 골을 못 넣어서 정말 아쉽다. 스타가 되려면 이런 상황에서 골을 넣어야 한다. 아직 부족하다. 더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웃었다.

또 “감독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 교체할 선수가 1명 더 있다는 게 감독님께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힘이 됐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팬들의 응원에 아드레날린이 솟았다. 감사함 잊지 않고 오래 축구해야 할 것 같다. 주장 영구권이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할 것 같다. 열심히 팀을 끌고 가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대교체 한국 펜싱 ‘4회 연속 금’ 찌른다



국제 대회에서 한국의 ‘효자 종목’으로 활약해 온 펜싱이 세대교체에 맞이한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빛 찌르기’에 나선다. 펜싱은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한국에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를 안긴 종목이다. 메달 수로만 보면 양궁(금27·은9·동7)이나 태권도(금12·은3·동7) 등 한국의 다른 강세 종목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펜싱의 메달은 2000년대에 만 나온 것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이상기가 사상 첫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김영호가 남자 플뢰레 개인전에서 금메달까지 따내며 한국 펜싱의 전성기가 시작됐다.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선 은메달만 하나(여자 플뢰레 개인전 남현희) 나온 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는 금메달 행진이 이어졌다.

특히 런던 대회 맨 여자 사브르 개인전(김지연)과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처음으로 단일 올림픽 ‘달리 금메달’이 탄생했다. 여기에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가 터져 나와 한국 펜싱 역사상 최고의 대회로 남았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맨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박상영이 금메달을,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김정원이 동메달을 획득해 자존심을 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정보다 1년 늦은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선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2연패(2016년 리우 대회는 종목 로테이션으로 미개최)를 달성했고, 여자 에페 대표팀은 단체전 은메달을 가져왔다.

남자 에페 단체전과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이 나와 한국이 출전권을 획득한 모든 종목에서 단체전 입상에 성공했다.

역대 금메달 5개 등 16개 ‘효자’ 남녀 사브르 등 3종목 메달 도전 광주 강영미·전남 최세빈 출전

이번 파리 대회를 앞두고도 지난 대회 결승에 올랐던 남자 사브르 단체전과 여자 에페 단체전이 금메달을 노릴 만한 주력 종목으로 꼽힌다. 남자 사브르는 기존 주축인 오상욱(대전시청),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예급인 박상원(대전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이 합류한다.

이번 시즌 월드컵 단체전에서 강호로 급부상한 미국, 전통의 맹주 프랑스 등이 경쟁자로 좁히는 데, 멤버가 바뀌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던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경험과 패기의 조화로 단체전 3연패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여자 에페 대표팀은 강영미(광주 서구청),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 최인정(계룡시청)으로 멤버가 유지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태극마크를 내려놓았던 최인정이 올해 전적 복귀해 안정감을 더했다.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 대표팀은 최근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단체전 4연패를 달성하며 실전 점점을 마쳤다. 남자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은 개인전까지 정상에 올라 2관왕에 오르며 첫 올림픽 개인전 메달 기대감을 키웠다.

2회 연속 단체전 입상을 노리는 여자 사브르는 최세빈(전남도청), 윤지수와 전하영(이상 서울특별시청), 전은혜(인천중구청)가 팀을 이뤘다. 단체전 출전권을 딴 이들 3개 종목엔 한국 선수가 3명씩 개인전에도 출전할 수 있는데, 오상욱과 송세라가 개인전에서도 메달 후보로 거론된다.

단체전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종목 중엔 남자 플뢰레의 하태규(충남체육회)와 여자 에페의 김재원(광주 서구청)이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펜싱의 ‘중주국’ 격인 프랑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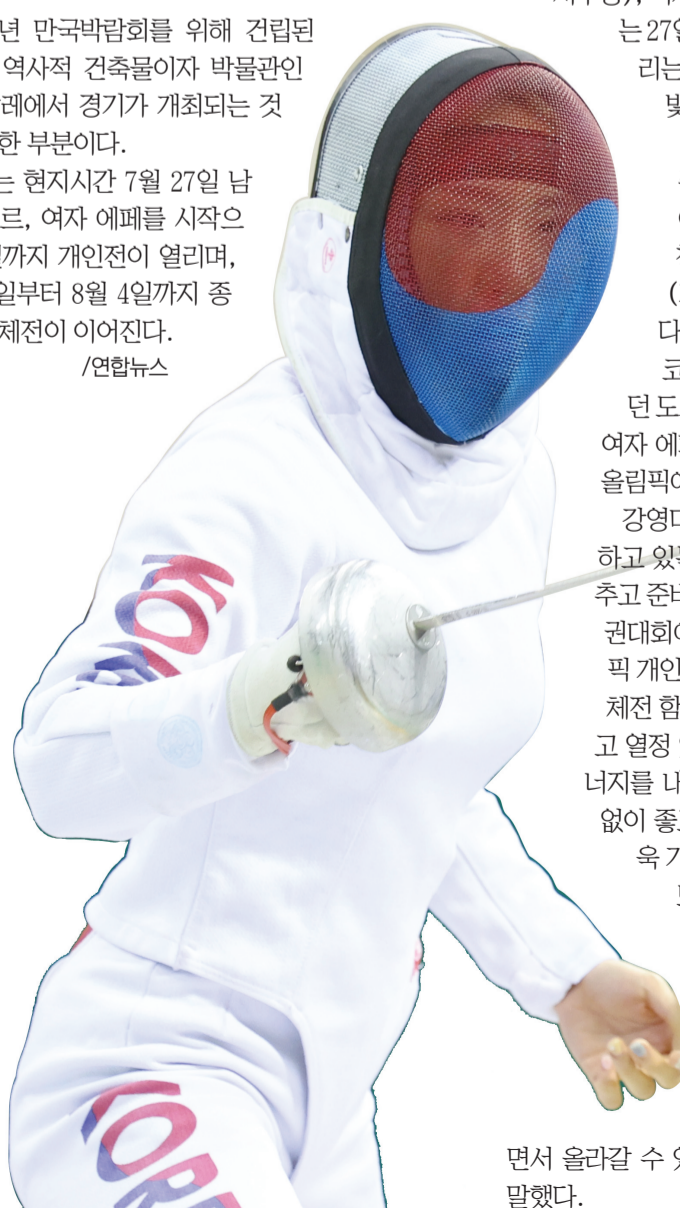
열려 출전하는 선수들에겐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마스크를 쓰고 검을 휘두르는 검술 자체로 보면 기원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 펜싱의 근간이 되는 검법은 프랑스에서 유래했으며 프랑스 귀족의 교양으로 발전하면서 스포츠로도 자리 잡았다.

1900년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립된 파리의 역사적 건축물이자 박물관인 그랑 팔레에서 경기가 개최되는 것도 특별한 부분이다.

경기는 현지시간 7월 27일 남자 사브르, 여자 에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개인전이 열리며,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종목별 단체전이 이어진다.

/연하뉴스



광주서구청 강영미 여자 에페단체 ‘금 유력’

남자 에페 김재원... 여자 사브르 전남도청 최세빈도 기대

펜싱 광주·전남 선수들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광주·전남 검객들이 펜싱 메달 계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자 에페 강영미, 남자 에페 김재원(이상 광주 서구청), 여자 사브르 최세빈(전남도청)은 오는 27일부터 8월 5일(한국시간)까지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펜싱 종목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강영미가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 최인정(계룡시청)과 함께 정상에 도전한다.

강영미는 “강도를 꾸준히 높여서 훈련하고 있는 중이다. 단체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입상을 한 만큼 올림픽 개인전에서도 욕심을 내보겠다”며 “단체전 함께 하는 선수들도 워낙 열심히 하고 열정 있는 선수들이라서,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다. 팀워크는 말할 것도 없이 좋고,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말안나나 보니 후배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담감이 없애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오려고 한다”며 “개인전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꼭 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앞서 강영미는 지난달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대회 단체전에서는 4연패를 달성하며 올림픽을 앞두고 실전 점점을 마쳤다.

김재원은 남자 에페 아시아 랭킹에서 2위에 오르며 이번 올림픽의 개인 출전권을 따내 남자 에페 선수 중 홀로 파리로 향한다.

김재원은 “흔하디 흔한 만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요즘 그런 마음을 많이 털어내고 편안해진 것 같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고, 주변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뛰고 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서구청 박광현 감독은 “선수들이 잘하니 부담도 많이 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모두 잘하고 올 거라고 믿는다”며 “(김)재원도 페이스 잘 끌고 가서 생각했던 전술들을 잘 보여주고 탄력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잘 이루고 왔으면 좋겠다”고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에게 응원을 전했다.

원손 검객 ‘사우스포’ 최세빈은 여자 사브르 윤지수와 전하영(이상 서울시청), 전은혜(인천시청)와 함께 단체전 대회 2연속 입상을 노린다.

2000년생으로 올해 23살인 최세빈은 지난 9월 열린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지난해 11월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에서는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 최세빈은 지난 1월 사브르 국제그랑프리대회 여자부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입상하기도 했다.

전남도청 김용률 감독은 “최세빈은 작년부터 급성장을 했다. 타고난 펜싱 감각이 있는 선수다. 기대가 많이 되면서도, ‘가서 성적을 잘 내가지고 와야 할 텐데’ 하는 걱정도 된다. 최근에 전화와서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더라.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본인의 실력을 잘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